

서울, 국제회의 아시아 1위·세계 3위

도쿄·파리 등 제치고 성과

서울이 지난해 총 180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하며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국제회의를 연 도시로 선정됐다. 특히 마이스(MICE) 도시로 잘 알려진 도쿄와 파리 등을 제치고 세계 3위, 아시아 1위라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국제협회연합(UIA)이 전 세계 1034개 도시에서 열린 국제회의 8859건을 분석한 결과, 도시별 개최건수 순위에서 ▲1위 벨기에 브뤼셀(338건) ▲2위 오스트리아 빈(239건)

▲3위 대한민국 서울(180건) ▲4위 스페인 바르셀로나(159건) ▲5위 일본 도쿄(148건) 순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은 2023년 아시아 2위, 세계 4위에서 각각 한 단계 상승해 2024년에는 아시아 1위, 세계 3위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성과를 두고, 국제회의 유치와 종합지원을 꾸준히 이어온 데다, 해외홍보관 상담 운영 등 다각적인 마케팅 활동을 확대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구리시, '시금고' 재지정 약정 체결

NH농협·KB국민은행 협력

구리시는 지난 27일 NH농협은행 구리시지부 및 KB국민은행 구리종합금융센터와 시금고 업무 취급을 위한 약정식을 체결했다.

백경현 구리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약정식에는 박현숙 NH농협은행 구리시지부장과 김용태 KB국민은행 구리종합금융센터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현 시금고

약정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진행된 시금고 재지정이 진행됐다. 이번 약정 체결에 따라 NH농협은행은 일반회계 및 기금용, KB국민은행은 특별회계를 담당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구리시의 모든 자금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게 되며, 시의 각종 세입·세출금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 관리 등 금고 업무를 수행하며 재정 안정과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예정이다. /구리(경)기-김용태 기자 mk4303@

한신학원 이사장에 오용균 목사 선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총회장 박상규)에서 직영하는 학교법인 한신학원(한신대·영생고) 제33대 이사장에 청주 덕촌교회 오용균 목사가 선출됐다.

한신학원 이사회는 26일 한신대 서울 캠퍼스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신임 오용균 이사장(60세·사진)을 선출했다고 30일 밝혔다.

1964년 충남 논산 출생인 오용균 이사장은 1983년 한신대 신학과에 입학했으며, 민주화운동에 투신해 1986년 집시법 위반으로 1년간 구속됐다. 석방 후 청주지역 노동운동에 투신했다가 해고된 뒤 한신대에 복학, 1992년에 졸

업하고, 2001년에는 한신대신학대학원에서 석사(M.Div)를 받았으며 2015년 목회신학(협동과정) 박사 과정에 진학해 학문적 깊이를 더했다.

오 이사장은 충북 괴산군 제월교회를 시작으로 청주시 덕촌교회까지 3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으며, 충북노회장과 충북CBS 운영이사,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7회 총회 서기를 역임했고, 현재 충북노회유지재단 감사로 맡고 있다. /이현진 기자



기초학력 보장, 정신건강 위기 대응 '학습진단센터·병원학교' 정책 제안

서울시교육청

새 정부에 12개 혁신 방안 제시 학생 마음건강 등 현장 중심 과제 선생님 동행 100인 변호인단 운영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 보장과 학생 정신건강 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와 '병원학교' 설립 모델의 국가적 확대를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30일 그동안 축적해 온 정책 실행 경험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교육 공약을 분석하고, 정책화에 기여할 12개 영역의 핵심과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가장 중점적으로 제시한 과제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 모델이다. 이 센터는 난독·난산·경계선지능 등 학교에서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학습 문제를 심층 진단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시교육청은 이 모델이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 보장 체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만큼, 범국가적 차원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 위기 대응 방안도 제안의 핵심이다. 시교육청은 그간 운영해 온 '서울공정적행동지원(PBS)' 과정서·행동 위기 학생 통합지원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건강 치료와 교육을 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4월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본지와 인터뷰 갖고 있다. /손진영 메트로신문 기자

계한 '병원학교' 설립과 '1학교 1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를 제안했다. 이는 학생들의 정서·행동 문제와 정신건강 위기가 중대한 교육 현안으로 떠오른 데 따른 것이다.

교권 회복과 관련해서는, 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교원 긴급지원 시스템 'SEM119' 등의 법률·제도적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의 필요성도 함께 밝혔다.

도시 중심 교육의 한계를 넘기 위한 '농촌유학'의 전국 확대도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이 2021년부터 운영 중인

농촌유학 프로그램에는 현재까지 2227명이 참여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90%에 달한다. 시교육청은 타 시도와의 협력, 안정적 거주시설 및 행정지원 기반을 바탕으로 농촌유학이 지속 가능한 공교육 모델로 자리잡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통합·특수교육 강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학교 안전 강화 ▲인문·예술·체육 교육 활성화 ▲국가책임 유아교육 확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추진 ▲초등 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고교 직업교육 혁신 등 다양한 정책들도 함께 제안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새 정부의 교육 공약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교육 주체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학교·지역사회·국가 전체가 함께 변화할 때 실행력이 높아질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정책 개발 및 운영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안은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공동 실천 전략"이라며 "새 정부 교육공약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이진숙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균형 발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첫 출근 "지역·사립대 동반성장 추진"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교육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서 정책의 실효성과 추진 전략에 이목이 쏠린다.

30일 첫 출근길에 나선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대통령께서 지방에 있는 저를 부르신 이유는 교육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교육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총장을 지냈으며,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 정책은 서울대 수준의 지역 거점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시스

국립대를 10개 이상 육성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순히 국립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립대와의 동반 성장을 전제로 한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거점국립대 중심 정책'으로 인한 지역 사립대 소외 우려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사교육과 입시 과열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역에 우수한 명문대가 생기면 서울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결과적으로 사교육 수요도 줄어든 것"이라며 "입시 경쟁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도 유의미하다"고 말했다.

등록금 규제 완화와 관련한 입장에는 원칙을 지키되 다양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나 역시 대학 총장 시절 재정의 어려움을 직접 체감했다"이라며 "등록금 인상은 신중해야 하지만, 재정 위기를 마냥 방치할 수는 없고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4 | 해질 / 19:57

7월 1일 (화) 음력 : 6월 7일

수도권 날씨 24~30°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지역별 날씨: 연천 24/29, 동두천 23/28, 가평 23/33, 파주 23/28, 서울 24/30, 양평 23/35, 인천 23/27, 수원 24/28, 용인 24/28, 평택 24/3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이란 핵물질 어디갔나... 트럼프 폭격에 IAEA 감시 난항
▲美항공사, 트럼프 영토 편입 의지 드러낸 그린란드에 직항 개설 /사진 뉴스시스

▲트럼프 감세안, 3.3조달러 부채 추가... '달러 위협' 경고 나와
▲맘다니 "억만장자 필요 없어"... 트럼프 "뉴욕 돈줄 끊겠다"

▲경제학자 90% "5~10년 내 달러 안전자산 지위 우려"
▲트럼프 "틱톡 미국 사업부 인수자 찾았다... 2주 후 공개"